

송원대학에 올인하는 고제철 송원그룹 회장

“최고의 교수진 투명채용, 제대로 된 私學 만드는 게 여망”

해방 전후의 전라도, 자본도 기술도 시장도 그야말로 척박하던 시기 기업을 일으킨 김호(1946년 창업) 박인천 회장, 보해(1950년) 임광형 회장, 행남사(1942년) 김창훈 회장등은 광주·전남 기업인 1세대들이다. 1957년에 토목회사를 창업한 송원그룹 고제철 회장은(82)은 마지막 1세대 기업인에 속한다.

고제철 회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한창이던 1960~70년대에 모태회사인 금광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뒤 1990년대에 토목·주력·유통·엔지니어링·관광등 12개 계열사를 기업군으로 거느리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기업엔 흥망성쇠가 있다. 2000년대 들어 송원그룹은 주력사인 금광기업의 수주감소와 거품났던 계열사들의 폐업으로 내리막 길을 간다. 급기야 지난해 4월 금광기업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그해 12월부터 지금까지 법원이 경영하고있다. 사실상 송원그룹은 해체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시기, 평생 키워온 기업이 쇠락해버린 회장의 만년에 고제철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송원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캠퍼스를 새로 짓는등 송원학원을 꾸꾸는데 몰두하고 있다. 그런 그를 금남로 4가 송원그룹 사옥 집무실에서 만났다.



문제였는데 8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지급했다. 다만 어음 발행한 게 없기 때문에 협력사에 다른 피해준 건 없다. 금광은 주로 관공사에 의존해왔는데 수주환경이 많이 변했다.

-어음발행을 안하시기로 유명한데 실제 그런가. 현금결제를 하는 대신 후려친다는 평도 있다.

▲나는 정말 여태껏 어음 한장 발행 안했다. 어음이란 게 결국 합의해 쓰지 마면 안된다. 하청회사로서는 괴로운거다. 현금을 지급하니까 다소 산 금액에 맡겨도 견적이 들어오는 회사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다.

-최근 금광기업 인수설이 있던데 어찌실 건가.

▲전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다. 호반건설 뿐만 아니라 토목에 관심있는 좋은 기업이라면 누구라도 금광기업은 욕심을 낼만한 기업이라고 자부한다.

-평생 토목현장을 누비셨을 것이다. 지역에 남는 현장은 어딘가.

▲고흥만 간척사업이 가장 보람있었다. 무려 2060ha를 농지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지도가 바뀌었다. 완도 신지도 연륙교도 보람있는 공사였다.

-어등산 개발사업은 계속되는가. 대기업에 업권을 넘긴다는 설도 있다.

▲골프장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 올 가을 회원권 발매를 시작할 거다. 완성되면 광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골프장이 될 것이다. 매각은 생각 안하고있다.

-최근 화두가 공생자본주의, 복지확대다. 기업인으로서 느낌이 어떤가.

▲실은 그게 맞다. 나는 일찍이 총장로기에 있던 인쇄조합 사환을 했다. 해방이 되었기 망정이지 그대로였다면 평생 일본 사람 심부름만 했을 것이다. 즉 국가가 있어야 개인도 기업도 큰다는 것이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가진 사람이 나눠야 한다. 나도 수십년간 지역사회에 은혜를 입었다. 부자에게 뺏아서 나눠주는 급격한 복지는 안되지만 지금처럼 가진 자가 독식하면 나라 망한다.

-기력이 좋아보인다.

▲타고난 건강체질이다. 광주 컨트리클럽에서 만 79세이던 2008년에 79타를 쳐서 에이지슈터라는 영광을 안기도했다. 가끔 골프도 하고 건강은 좋은 편이다.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특별 인터뷰=조경완 편집국장

-송원대 4년제 승격, 동기가 뭐냐. 전문대보다 더 경쟁력 있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4년제 컴플렉스때문인가.

▲제대로 된 사학을 사회에 남기고 싶기 때문이다. 솔직히 지금의 송원대는 삼류다. 이걸 일류로 만들어놓고 싶다. 나는 여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다. 광주·전남엔 전문대도 많고 4년제 대학도 많다. 그러나 그중 설립자가, 혹은 재단이 진정으로 투자하는 대학이 있는가.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사재를 털어넣을 것이다

-광주실업전문대학을 인수하게 1978년이다. 그렇게 좋은 대학을 만들고 싶으면 왜 이제야 하나.

▲광주실전을 인수하고 송원전문대학으로 개편하면서부터 4년제를 준비해왔다. 1981년에 이미 답양군 금성면에 12만평의 새 캠퍼스 부지를 확보했고 1990년대 초 4년제를 거의 설립할 뻔 했다.

고백하건데 1980년대 말부터 4년제 승격 준비를 시작해 노태우 정부 초반에 승격을 받으려했다. 당시 월계수회를 이끌던 박철언씨의 도움을 받았다. 박씨는 노대통령 선거운동때부터 당선 이후까지 광주를 자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성의를 다해 모셨다. -너물을 쫓던 말인가.

▲권의제공을 했다고 해두자. 수년째 조건 없는 도움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날엔가 그가 연락을 해왔다. '교회장 항상 고마운데 무슨 부탁하실 일이 있느냐'고 했다. 그때 송원대 4년제 승격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단박에 승인이 났다. 땅도 준비 해줬었다. 캠퍼

스도 새로 짓고 완전히 4년제 신생 대학으로 출발하려했다.

-왜 안됐다.

▲그때가 1990년대인데 전국이 전교조사태로 몸살을 앓을 때였다. 대학에서도 시위로 날마다 최루탄이 난무했다. 당시 송원대에 있던 내 측근 광모씨와 천모씨가 새 대학 설립을 극구 만류했다. 사립대는 모두 운동권

수진을 선발할 것이다. 물론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 국내외의 최우수 두뇌들을 송원대에 모셔 마음껏 연구하고 가르치게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도 과격적인 장학금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인재들은 모인다. 4~5년 내에 결판이 난다. 국가가 부실대학들을 걸러내주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 있다.

“

1978년 광주실전 인수때부터 4년제 준비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송원에 오히려 유리

산하 기업들 정리, 사재 털어 대학에 투자

가진 자가 나눠야... 지역사회 은혜 입었다

”

에 넘어간다는 거였다. 축장과 풍파리가 난무하던 당시 대학가 모습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고 믿을만 했다. 6·25를 겪어 본 사람들은 그 당시 인공(人共)때의 섬뜩한 분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결국 망설이다가 4년제 허가를 반납했다.

-지금은 부실대학들을 국가가 정리하는 국면이다. 최악의 시기를 잡은 것 아닌가.

▲오히려 기회라고 본다. 나는 최고의 교

-교수 선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고권위의 채용 심사위원회를 을 해말에 구성할 것이다. 나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절대공정 절대경쟁의 선발을 할 것이다. 나는 그동안에도 교수채용 댓가로 일전 합본 받지 않았다. 이걸 자부한다. 실력있는 교수진이 갖춰지면 그보다 못한 교수들은 도태될 것이다. 지금 송원대 교수진 가운데 상당수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말씀대로라면 보기 드문 모범 사학 이사장이다. 송원대에 올인하겠다는 말인가.

▲그렇다. 기업인으로 나는 할 건 다 했다. 지역사회에 큰 은혜를 입었다. 이제 내 기업들을 서서히 정리해서 송원학원에 모두 투자할 것이다.

내 모친이 태몽을 줬는데, 넓고 잔잔한 바다에서 큰 붓대를 한아름 안고 솟아오르는 꿈을 꾸셨다. 그래서 학문이나 학교쪽으로

성공할 거라는 말씀을 늘 하셨다. 그말은 평생 나의 뇌리에 있었고 이제보니 송원학원이 나의 운명인것 같다.

-송원학원 외에 다른건 다 접는다는 말로도 들린다. 주력사 금광기업은 왜 법정관리까지 갔나.

▲경기도에 320여차례 공사를 하던중 자금이 막혔다. 250억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그게 안됐다. 하도급 근로자들 임금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IT-광융합 실무과정)

교육생 모집

지원자격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의 학력자(18-30세), 전공과 무관, 미취업자
- 201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주간학생 가능
- ※ 우대조건 : 장애인,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2년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선발시 가산점 부여)
- ※ 지원 대상 제외자 : 동 사업에 기 참여한 자 또는 참여 중인 자, 대학원 재학 중인 자, 주민등록등본상 광주지역 외 거주자, 현재 기업에 재직 중인 자(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 전 부처 실업대책사업에 참여중인 자, 실업급여(구직수당, 재취업 활동지원금 등) 수급 중인 자

연수내용

- 모집인원 : 30명
- 모집기간 : 2011.08.11 ~ 2011.08.29
- 연수기간 : 2011.09.01 ~ 2011.11.30
- 강의시간 : 월~금 16:00 ~ 22:00(공휴일제외)

연수생 혜택

- 3개월 동안 연수수당 지급 : 최대 60만원 지급(월 20만원)
- 첨단시설/장비를 활용한 실습교육 및 교재 제공
- 취업알선 : 기업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 교육과정 수료 시 취업추천서 발급
- 연수기간 중 희망기업 취업가능(연수기간 내 취업 시 조기수료 가능)
- 개인별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면접 등 면접 Skill 업그레이드 지원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온라인(이메일)서류 작성 제출 (조선이공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번호:1535) 참조)
- 전형절차 : 사전접수 → 정시모집 → 면접전형 (인성 및 취업의지) → 최종합격 통보

교육상담 및 문의

- 담당교수 : 정병윤 (조선이공대학 광전자정보과)
- Phone : 062-230-8038 / 010-3607-8100
- F A X : 062-230-8444
- 신청서 접수 : E-mail ilk1010@naver.com